




HAL
open science



Daeyeol Kim

► **To cite this version:**

Daeyeol Kim.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20th Anniversary of the Seongho Museum, Gyeonggi-do, Ansan-si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The Silhak Museum, Oct 2022, Ansan, South Korea. <hal-04095623>

HAL Id: hal-04095623

<https://hal.science/hal-04095623v1>

Submitted on 16 May 2023

HAL is a multi-disciplinary open access archive for the deposit and dissemination of scientific research documents, whether they are published or not. The documents may come from teach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France or abroad, or from public or private research centers.

L'archive ouverte pluridisciplinaire HAL, est destinée au dépôt et à la diffusion de documents scientifiques de niveau recherche, publiés ou non, émanant d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et de recherche français ou étrangers, des laboratoires publics ou privés.

星湖의 서학, 지평 융합 그리고 글로벌 인문학

김대열, Inalco (Paris)

이 발표의 요지는, 이제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토대로, 글로벌 인문학이라는 입장에서 성호의 서학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시각을 정리해 보는 데에 있다. 다양한 문명의 만남의 자리에서, 인류의 보편성과 각 문명의 특수성을 아울러 관찰함으로써 인류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인류 문명을 보다 다양하고 풍부하고 깊이 있게 하는 것이 글로벌 인문학의 계기이자 목적이 아닌가 한다. 이제까지 성호와 서학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하면서 성호의 학문 방식과 태도를 개념적으로 그리고 도식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우선, 성호와 서학과의 관계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양상과 논점들을 정리해보겠다.

星湖의 학문 혁신

성호 학문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굳이 선택하자면 지식과 이해의 치밀함, 엄격함 그리고 개방성이다. 특히 이 후자는 그의 지식 지평의 확장에 기여했다. 성호는 자신의 학문적 전통 내에서, 즉 유교 전통 내에서도, 사상과 지식 발전에 중요한 업적과 지표들을 남겼다. 특히 그의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는 여러 개념들을 보다 정밀하고 명료하게 하는 데에 기여했다. 예를 들어, 사단칠정 논의에서 사단과 칠정의 구분을 大氣와 小氣로 구분하고 公과 私의 구분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차세에 궁극적으로 자연계의 원리와 인간 사회에서의 윤리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렛대를 제공했다.¹ 또한 주자의 격물 개념에 따라 지식 탐구는 광범위해야 하고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하는 것으로 성호는 파악하고 있었다.² 특정한 지식 분야나 특정 전통에 갇히지 않고 활용 가능한 모든 지식을 검토하고자 하였고, 참조 준거를 확대하고 다양한 지식 정보를 집적했다.³ 그리하여 인간, 사회, 자연을 망라하는 지식의 집약을 성호사설을 통해 이루었다.

星湖와 西學의 관계

그의 서학에 대한 관심도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 상에 있다. 그는 새로운 학문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학 가운데에서도 천문학, 수학, 지리학 등의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성호 학문의 특징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와 부합되는 부분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수궁이 가는 바가 있으면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여 자신의 개념 체계 안에 활용하려 했다는 점이다.

한편, 타문화의 만남은, 특히 성호의 경우와 같은 깊이 있는 만남은, 쌍방향에서 매우 복잡다단한 지식 전달의 과정과 요인이 개입된다. 성호가 « 주제군징 »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쓸 때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 냈을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인다.

¹ 김형찬 2010, 85-89.

² 김성수 2008, 21.

³ 심경호 2017, 138

왜냐하면 « 주제군징 » 자체가 이미 성호의 학술 언어인 한문서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찰의 초점은 여러 군데로 나뉜다. 어떤 지식의 내용을 예수회 신부가 라틴어로 이해할 때, 그것이 중국에 있는 예수회 신부에 의해 한역될 때, 그리고 그 한역을 성호가 읽을 때이다. 성호의 글은 결국 당시 조선인의 사고를 타문명의 그것과 연계시켜 비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비교엔 지표가 있어야 하는데 성호의 글은 그러한 지표들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이 지표들은 복잡한 지식 이동의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의 단서를 제공한다.

문화적 ‘이식’은 결국 다소간의 문화적 ‘변동’을 낳는다. 새로운 문화적 모델과의 만남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수용 문화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러한 ‘변화’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것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은 내부 전통의 어떤 틀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매우 자유로운 방식으로, 또 창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해석이나 절충의 경우가 그렇다. 새로운 요소가 수용 문화 안으로 편입되어 자리를 잡고 기능하게 되는 것은 기존의 것들을 확장시키거나, 이동시키거나,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대체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수용 문화 내에서 일정한 기능과 자리를 확보한 이 과거의 새로운 요소는 미래의 새로운 요소에 대해 수용 문화의 적출임을 주장할 수 있게까지 되는 것이다.

서학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했던 성호의 사유방식에 이미 합리성과 개방성이 내재해 있었다면, 그것은 성호가 몸 담고 있는 전통에 그 원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합리성과 개방성은 ‘근대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적당한지 물을 수 있다. 그전에는 없던 것이 그의 시대에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라면 ‘근대성’으로 부르겠지만, 이미 있었던 것이므로 ‘근대성’이 아니라 ‘전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러한 합리성과 개방성은 서학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는데 서학과의 접촉이라는 배경 위에 두드러져 보였을 뿐이다.

성호 서학의 한계

한편, 성호가 만난 서학은 해당 시기의 서양 지식 세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있다. 기점 지식이나 사상이 수용 지역에 온전히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성호의 경우 서학은 책만으로, 즉 매우 제한된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었다.

성호가 읽은 한역 서학서는 번역 혹은 변안된 서적들이다. 서양 지식 체계가 예수회 신부들의 이해와 지식 전달 목적에 맞추어 굴절되고, 또 그것은 그들이 이해한 중국어와 그들의 인식 지평 내에 자리한 중국의 지식 체계를 매개로 하여 한역으로 표현되었다. 선교사들을 통해 여러 차례 그리고 다양한 변화를 겪은, 즉 이미 서양과 동양의 지식 지평의 만남을 통해 일정한 변화를 겪은, 그러한 개념과 지식들을 성호는 접한 것이다. 그렇게 전달된 개념과 지식들은 본래 당시 서양 사회가 지니고 있던 세계관이나 가치관, 지식 체계를, 그 정합성과 복합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성호는 서양의 어떤 지식 체계 전반을 온전히 만난 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한역 서학서 자체가, 번역 혹은 변안된 개념들이 모여 구축하고 있는, 새로운 지적 혹은 문화적 단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서학서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단층이 있었다.

성호의 지평 융합 - 두 차원

이렇듯이 성호와 서학의 만남에는 복잡다단한 단면들이 드러나며 인문학적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이를 좀더 개념적으로 도식화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히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Hans-Georg Gadamer)의 지평융합 이론을 빌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의 이론은 일반적으로 두 차원으로 나뉘어 이해되어지곤 한다. 하나는 동일 지식 전통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른 두 전통이 만나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첫째는, 해석의 주체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적 전통을 새로운 해석의 객체로 인식하고 자신은 새로운 해석의 주체가 되는 경우이다. 달리 말해서, 같은 전통 속에서 인식자의 인식 활동을 통해, 그가 몸담고 있는 기존 전통이 객관화되어, 인식자에게 새로운 만남이라는 사건이 되는 경우이다. 이로써 기존의 전통과 새로운 해석의 주체 간에 서로 다른 두 지평이 형성되며, 충돌하고 융합의 과정을 겪는 것이다. 성호의 경우, 자신이 속해 있는 유교의 지적 전통이 지니고 있던, 여러 논점들을 파악하고 자신 스스로 새로운 분석과 해석을 시도할 때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성호가 유교 사상 전통 내에서 혁신적인 학문 업적을 남긴 것은 이러한 과정의 산물인 것이다.

둘째는, 인식 주체가 미지의 전통이나 문명을 만났을 때이다. 우선 두 문명의 만남은 언어라는 첫번째 장벽이 해결되었을 때 가능하다. 그 후, 다양한 측면에서 거리가 있는 두 문명의 지식 지평이 만났을 때, 둘 사이에 어떤 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 또 극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선입견이다. 인식의 주체가 기존 전통으로 형성된, 그래서 새로운 전통을 만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선입견을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할 때, 혹은 인식의 주체가 새로운 전통에 대해서 긍정적인 선입견을 가질 때, 두 지평의 융합은 시작될 수 있다. 인식 객체의 입장, 즉 새로운 문명의 입장에서 보면, 수용 문명 안에서 쌓여진 그래서 해석의 주체가 지니고 있는 선입견을 해체시키고 타자인 객체를 주체가 받아들이겠끔, 객체가 주체에 대해 어떤 힘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객체의 힘은 그것이 주체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로, 어떤 의미로 인식될 때 발휘된다. 성호와 서학의 만남은, 그가 몸담고 있는 전통 밖의 전혀 새로운 전통으로부터 주어진 지식 지평을 성호가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성호의 글을 읽어 보면, 그는 그가 속한 전통의 권위에 의해 주어진 선입견만으로 새로운 텍스트를 읽고 있지 않음을 발견한다. 전통에 입각한 선입 관념이 그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호의 지적 지평은 새로운 텍스트에 열려 있고, 자신의 지식 지평을 수정하고 확장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기존 전통으로부터의 선입견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서학은 어떻게 성호의 선입견을 무장해제 시킨 것일까? 성호는 어떻게 서학에 대한 긍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게 된 것일까? 실제로, 성호는 « 주제군징 »의 의학이 중국의 의학과 다르고 매우 자세하지만, 그 규모와 용어가 매우 달라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⁴ 한편, 그는 서학을 수증하는 것에 대해, 古人과 달라도 이치에 합당하다든가, 매우 상세하다든 등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⁵ 그것은 곧 성호는 자신이

⁴ 안영상 2004, 503

⁵ 김성수 2008, 30-33.

이해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서학 텍스트가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정합성을 지닌 지식 체계일 것이라는, 이 새로운 지식 체계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선입견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성호가 서양의 천문학과 지리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와 평가로부터 오는 듯하다. 그로부터 얻은 선입견에 힘입어 성호는 열린 자세로 의학과 관련된 지식도 접하게 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성호의 학문 태도 가운데 중요한 점 하나가 두드러지는 것이다. 성호의 박학의 추구가 그 이후 성호 학파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학과의 관계에서, 그것은 단순한 박학의 결과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개방적 사고라는 점에 주의가 기울여진다. 서학이 지닌 어떤 가치를, 예를 들어 정합성을 성호가 인정했기에, 그가 서학에 대한 그러한 긍정적 선입견을 가질 수 있었기에, 그의 서학에 대한 박학의 추구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서학에서 얻은 지식을 단순히 인용하고 자신의 지식 세계에 단순 추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지평에 적용하고 있다. 자신의 지식이 형성된 전통 내에서의 합리적 인식 체계, 그 안으로 서양 지식을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⁶ 이러한 면에서 그의 인식 지평과 서학의 지평은 융합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다.

같은 지적 전통 내에서 일어나는 지평 융합과 서로 다른 지적 전통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지평 융합, 이 두 차원의 지평 융합은 또한 서로를 간여한다는 것을 성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성호의 경우, 서학의 만남에서 얻은 지식이 유교 전통 내에서의 어떤 내용을 확인시켜 주기도 하고 혹은 문제점 해결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한편, 유교 전통 내에서의 지식을 바탕으로 서학에서 만난 어떤 부분들을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유교 내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학에로의 접근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의 글로벌 인문학

성호가 남긴 글들 속에서 유교 사상 전통의 어떤 양상들은 서학과의 대조를 통해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곤 한다. 이는 성호의 학문과 그가 남긴 글들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도전이다. 여기서 우리란 한국에 있는 학자 뿐만 아니라 서구에 있는 학자들도 해당된다. 성호가 보편적 합리성과 학문적 엄격성을 가지고 자신의 전통 바깥에 있는 지식 지평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학술 기준을 적용하고자 했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성호를 통해서 18세기 초기 조선의 학문을 가지고 글로벌 인문학을 거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호와 서학의 만남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지적 지평 형성의 상황은 사실 좀더 복잡하다. 서양 지식이 성호의 글 속에서 어떤 변환을 겪는지, 그것이 성호의 지식과 이해의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호가 그의 학문을 통해 보여주는 새로운 지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새로운 지평이 성호 시대와 그 후세에 끼치게 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호와 성호학파에 대한 선행 연구가 풍부하고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계속 진전될 것이라

⁶ 예를 들어, 외부 사물의 자극에 대해 판단없이 곧 바로 반응하는 것은 뇌의 일이고, 그 자극에 대해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은 심장이 하는 일이라는 설명은, 유교적 인체관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서양 의학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이다. 이로써 성호는 외부 자극에 대한 무조건적 반응의 기능과 이에 대한 사고 판단의 기능을 세분하게 된다. 안영상 2004, 504 쪽 참조.

믿는다. 반면, 타자 쪽 원천으로부터 성호의 새로운 지평 형성에 기여하는 여러가지 요소, 즉 서학서의 근거를 이루는 당시 서양의 일부 지식 세계의 지평과 서학서의 지평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비교적 최근부터 보이고 있는 듯하다.⁷ 예를 들어, 서양의 인체관에서, pneuma 를 정신과 물질의 두 측면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靈魂을 물질 세계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고 있고, 마테오 리치도 마찬가지로 물질적 氣와 무관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아담 샬은 마테오 리치와 달리 중국적 사유에 접근하는 해석을 한 바 있다.⁸ 즉, 서양에서도 서로 다양한 관점이 있고, 심지어 같은 소속회의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 문명들 간의 만남의 자리에서는 새로운 문화나 지식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맥락에서 전달되었는지를 늘 확인해 봐야한다. 문화적 ‘자산’의 이동의 맥락과 수준과 한계를 다양한 차원에서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회 신부들에게서 보여지는 이 다양한 지식과 이해의 지평을 성호가 알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성호의 글에서 서양인들의 지평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발견된다면 놀라울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외부의 혹은 타자의 다양성을 고려해야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다. 인문학은 인류 문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호의 서학을 인문학에서 연구한다는 것은, 서양으로부터 전달된 지식이 그 기점에서 어떤 성격의 지식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포함한다.

글로벌 인문학의 난제 가운데 하나는 서로 만나는 다양한 지평들 각각을, 그의 역사성, 시대적 특수성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을 통해서, 깊이 있게 파악해야 하고, 그들 각각이 처한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모두 감안해야 하고, 그들이 만나는 그 자리 또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과거의 다양한 지평들의 만남의 자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성호에 대해서, 오늘날의 우리가 그에 대한 이해를 추구해 나가면, 그 모든 지평들을 관찰할 수 있는 우리의 지평 역시 확장되며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 성호의 학문과 글들은 바로 이러한 이해의 역동적 과정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우리는 18 세기 조선에 알려진 서학에 대하여 성호가 도달했던 이해를 넘어 보다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이해를 해야 하고 성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인체관을 포함한 우주관이라는 근본적인 주제에 대해서, 동쪽에서는 고대 중국으로부터 시작하여 도교적 의학 전통, 그리고 소옹과 주자를 거치며 17 세기까지 내려온 지식 전통이 있고, 서쪽에서는 고대 희랍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리스토텔레스와 갈레우스, 그리고 중세의 스콜라 학파와 기독교 세계관을 거치면 17 세기까지 내려온 지적 전통이, 거의 이 천년 동안 각각 분리되어 발전한 두 문명이, 중국의 예수회 선교사들과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을 통해 만나게 되는 이 무대에, 조선으로부터는 성호가 선구자로 등장하는 것이다. 동키호테는 그의 친숙한 지평을 벗어나기를 거부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와 만날 때마다 희극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성호는 동키호테와는 다르게, 친숙한 지평에 벗어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서학에 대한 성호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는 서로 다른 문명이 의미

⁷ 여인석 2012 ; 김보름 2020 ; 김보름·곽문석, 2021 ; 김선희 2022.

⁸ 안영상 2004, 498.

있는 만남을 이루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글로벌 인문학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참고 도서

강병수, 2011, 성호 이익의 성호사설 의 세계 - 천지문의 항목과 내용 검토 -, 동국사학(50) : 127-171.

구만옥, 2018, 조선후기 西學 수용과 배척의 논리 - 星湖學派의 西學觀을 중심으로, 동국사학(64) : 127-181.

김보름, 2020, 主制群徵의 전래와 수용 - 인체론에 대한 한·중·일의 이해를 중심으로-, 儒學研究 (50) : 371-400.

김보름·곽문석, 2021, 주제군징에 나타난 大 플리니우스의 자연학, 고전번역연구 (12) : 9-38.

김선희, 2019a, 인체 이론과 심 이론의 통합과 분리 - 의령에서 맹자요의까지 서학을 통한 다산의 인간 이해의 변화, 다산학 (34) : 113-158.

김선희, 2019b, 조선 후기 유서(類書)와 서학(西學), 민족문화연구(83) : 45-91.

김선희, 2022, 영혼(靈魂)에서 인성(人性)으로 - 性學 摘述의 철학적 인간학과 유교적 변용-, 민족문화연구 (94) : 247-286.

김성수, 2008, 朝鮮後期 西洋醫學의 受容과 人體觀의 變化 - 星湖學派를 중심으로 -, 민족문화(31) : 311-358.

김형찬, 2010, 조선유학의 理 개념에 나타난 종교적 성격 연구 - 退溪의 理發에서 茶山의 上帝까지 -, 철학연구(39) : 67-101.

朴星來, 1985, 星湖僿設 속의 西洋科學, 震檀學報(59) : 177-197.

손용택, 2012, 성호사설 ‘만물문(萬物門)’의 지리 관련내용 고찰, 대한지리학회지(47) : 60-78.

심경호, 2017a, 성호의 僿設과 지식 구축 방식(1), 民族文化 (한국고전번역원, 49) : 137-186.

심경호, 2017b, 성호의 僿設과 지식 구축 방식(2), 民族文化 (한국고전번역원, 50) : 245-300.

심경호, 2020, 성호사설의 생물지식 재편 시도, 한문학논집 (55) : 147-189.

안영상, 2004, 동서 문화의 융합 충돌 과정에 나타난 성호학파의 철학적 특징, 민족문화연구 (41) : 489-529.

여인석, 2012, 주제군징(主制群徵)에 나타난 서양의학 이론과 중국과 조선에서의 수용 양상, 의사학 (21) : 251-278.

임부연, 2014, 성호학파의 천주교 인식과 유교적 대응, 韓國思想史學 (46) : 247-282.

임종태, 2003, 17.18 세기 서양 과학의 유입과 분야설의 변화 - 『星湖僿說』 「分野」의 사상사적 위치를 중심으로 -, 韓國思想史學 (21) : 391-416.